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수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Demand for Population Inflow in Population Reduction Areas

이향미** · 최봉문*** · 김종하****

Hyangmi Yi** · Bong Moon Choi*** · Jongha Kim****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policy demand for population inflow in Hongcheon-gun, a region that has experienced population decline over the past decade. The results of this study based on the multinomial logit model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due to the differing factors influencing the demand for population inflow policies among the young and the elderly, local governments should clearly define the policy targets for population inflow. Second, in the context of policy demand for population inflow through corporate attraction, we identify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f the length of residence for both young and old people, and the level of formal education for the elderly. These resul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ormulating population inflow policies distinctively targeted for the young and the elderly generations, respectively, thereby increasing population inflow in the population reduction area.

Keywords: Depopulated Areas, Local Extinction, Population Inflow, Multinomial Logit Model, Customized Population Inflow Policy

1. 서론

우리나라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보다 수도권 인구(50.1%)가 더 많고, 이러한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례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이러한 인구 집중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는 공동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은 지역의 완전한 소멸 단계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김현호, 2021). 실제로 이장

옥 외(2019)는 인구 순유입 규모 감소는 지역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가 있고, 인구유입이 감소할 경우 취업유발 효과 약화,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민간소비, 건설 및 설비투자 등 유효수요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정부는 2021년에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

*이 논문은 2023년 농촌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수요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주저자: yihyangmi@ekr.or.kr)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bmchoi@mokwon.ac.kr)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교신저자: krefkim@mokwon.ac.kr)

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이 89개 기초 지자체는 대체로 시·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도는 홍천군을 포함해 12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것은 전남·경북 16개 지역 다음으로 강원도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로 많이 선정되었지만, 인구밀도를 고려할 경우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례로 전남과 경북의 인구밀도는 각각 144명/km², 139명/km²이지만 강원도는 90명/km²에 불과하다. 강원도 내에서 홍천군의 인구밀도(37.3명/km²)가 가장 낮다. 따라서 황정임 외(2010) 지적처럼 도시적 특성이 강한 곳일수록 인구순유입률이 높기 때문에, 농가인구 비율이나 경지면적과 같은 농촌 특징이 강한 지역의 인구 유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21년 홍천군 사회조사’의 원시 자료(Raw Data)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귀농귀촌 특구 지정 후 성공적으로 인구유입에 성공한 홍천군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은 마스다 히로야(2015)가 일본을 대상으로 향후 25년간 지방인구가 감소하면서 상당한 지방이 소멸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하였다.

한국의 지방소멸은 이상호(2016)가 지역의 인구재생산력의 감소에 따라 소멸지역을 분석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후 지방소멸 또는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면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책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인구의 유출이 지역경제의 쇠퇴 및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서비스,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유출방지 및 유입촉진, 주민 및 지역역량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평균 인구증감율,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행정안전부, 2021.10.19).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3개), 대구(2개), 인천(2개)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촌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면서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김새힘·조미정(2019)은 240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4개의 군집으로 구분하고 군집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정주원·이아라(2022)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을 4개로 군집화하고 특성을 분석한 후 각 군집별 특성에 맞게 청년유입을 위한 귀농정책(군집 1), 인근지역과 연계한 주민 수요 중심 인구정책(군집 2), 지역산업 육성과 주소지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정책(군집 3), 생애주기 맞춤 인구 유입정책(군집 4) 등의 정책을 차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인수·장찬우(2022)는 89개 지역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공통적으로 20~30대 초반 연령층의 사회적 감소가 인구감소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젊은 연령층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젊은 층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광훈(2023)은 청년층의 취업여부 및 일자리 특성에 따라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층 일자

리문제가 결혼 및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봉문 외(2020)는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정책으로 생활권계획의 역할 및 생활권 SOC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구감소는 특정 지역 단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연대의 관점에서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유도하는 지역상생의 해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기의 선행연구는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젊은 층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 또는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정책 시행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 대한 정량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의 원인과 인구유입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박종훈 외(2020)는 226개 지자체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접근 개선은 해당 지역과 인접지역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철도 접근도 제고 방향의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제안하였다. 그리고 구지영·안영진(2014)의 '장흥군 귀농귀촌인 실태조사(380여 가구)' 분석 결과, 농지비율이 높고, 지가가 저렴하여 토지구입이 용이한 지역의 경우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귀촌인 유치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농업생산'이라는 농촌의 기존 특징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김지영 외(2022)는 인구소멸지역일수록 청장년층의 인구유입은 감소하고, 의료 인프라와 인구소멸지역 여부의 상호작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인프라가 청장년층 인구유입을 촉진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단순한 일자리 수 증가가 청장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제공되는 일자리가 해당 연령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자신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들이 충족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김주영(2020)은 강도원 지역 간 인구가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세대에 관계없이 지역의 개인소득수준과 주거비용은 인구의 순이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석호원(2012)의 분석결과, 군(郡) 지역의 지가가 1% 상승 시 약 2.8명의 노인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특정한 계층의 인구가동을 유인할 동기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손승호·이호상(2021)은 지난 5년 동안(2015년~2020년) 전체 80%에 달하는 면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과소화가 진행되었고, 인구 과소화 경향은 수도권 및 부산권에서 떨어질수록 강해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된 성장동력은 일시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파급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 인구유입에 관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농촌지역 인구유입에는 교통, 농지가격, 의료인프라, 소득수준, 주거비용, 지자체 공공서비스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손승호·이호상(2021)의 지적처럼 단순 일자리 수 증가보다는 세대별 특징을 반영한 매력적인 일자리수가 농촌지역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국 시군, 또는 읍면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의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10년(2012년~2022년) 동안 0.4% 인구가 증가했는데, 원주시(11.8%), 춘천시(5.3%) 중심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강원도 내 모든 군(郡)지역의 인구유입은 감소했는데, 강원도 내 군(郡)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홍천군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2.2% 인구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내 군(郡) 지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있지만 인제군 다음으로 인구감소율이 적은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인구유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귀농귀촌 정책이 인구 질벽에 따른 지역소멸위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정책을 발굴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 맞춤형 정책수요 발굴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구유입에 대한 고령층과 그 외 청장년층으로 정책수요를 구분했기 때문에 지역 인구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을 모색한 차별성이 있다.

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홍천군 사회조사’의 원시자료(raw data)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홍천군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 사항을 파악해 사회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매년 조사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만13세 이상 가구원 1,585명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로 인구유입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를 대상으로 만 20세 이상 ~ 59세까지를 청장년층(334명, 37.2%명), 만 60세 이상을 고령층(565명, 62.8%)으로 구분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으로는 교통인프라 구축, 의료인프라 구축,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의 그룹더미일 때 이용할 수 있는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수요를 인구 특징별로 살펴보았다.

다항로짓모형은 McFadden(1981)에 의해 이론적으로 개발된 확률효용이론(Random Utility Theory)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확률효용이론은 효용은 확률함수로 가정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자의 효용은 관측이 가능한 결정적 효용과 관측이 불가능한 확률

적 효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항로짓모형의 특징은 비관련 대안으로부터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IA)이다. IIA의 속성은 “어떤 2개의 대안에 대한 선택확률의 비율은 선택대안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또는 “어떤 2개의 대안의 선택확률의 비율은 다른 대안의 시스템적 효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다항로짓모형의 적용을 위해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선택이 독립변수와 선형관계가 존재함을 가정하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오차항 e_i 는 독립적(independent)이고, 동일한 와이블(Weibul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만약 홍천군민 i 가 m 개의 유형 중 하나(h)에 속할 확률은 식 (2)과 같이 표현된다.

$$Y_i = \alpha' X_i + e_i \tag{1}$$

$$P_{ih}(x) = \frac{\exp(x_i \alpha_h)}{1 + \sum_{l=1}^m \exp(x_i \alpha_l)} \tag{2}$$

그런데 $\sum_{k=1}^m P_{ih} = 1$ 이므로, m 개의 α 가 모두 식별될 수 없다. 따라서 m 개의 유형 중 하나, 예를 들면 유형 s 를 기준으로 삼아 $\alpha_s = 0$ 으로 가정하면 경제주체 i 가 s 를 선택할 확률, P_{is} 는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P_{is} = 1 / \sum_{l=1}^m \exp(x_i \alpha_l) \tag{3}$$

다만, 식 (2)에서 $P_{ih}/P_{is} = \exp(x_i \alpha_k)$ 가 되어 α_h 는 유형 s 에 비해 유형 h 에 속할 확률에 각 설명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다항로짓모형은 식 (1)에서 오차항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은 특정 세 범주의 승산(odds)은 나머지

범주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IIA). 따라서 이 외같이 IIA 제약조건이 적절한지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usman and Mcfadden(1984) 이 제안한 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4. 인구유입 수요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홍천군민 총 899명을 대상으로 인

구유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Table 1은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남자이고, 배우자가 있다. 현재 거주지역은 청장년층은 읍부에, 고령층은 면부에 거주비율이 높다. 그리고 정규학력 수준은 고령층의 경우 대부분 저학력, 청장년층은 고학력 수준의 비율이 높다. 이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청장년층과 고령층 모두 농림어업보다는 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Division		Young Adults	Elder	Note
Number of Respondents		334.0	565.0	-
Gender	Female	74.0	164.0	chi2(1) = 5.09**
	Male	260.0	401.0	
Region	Eup	218.0	222.0	chi2(1) = 56.68***
	Myeon	116.0	343.0	
Ddegree of Education	Below High School	33.0	371.0	chi(1) = 263.98***
	High School or Higher	301.0	194.0	
Marital Status	No Spouse	125.0	208.0	chi2(1) = 0.03
	Have a Spouse	209.0	357.0	
Job	Inoccupation	59.0	199.0	chi2(1) = 76.80***
	A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41.0	141.0	
	Other job	234.0	225.0	
Household Income	Less than 3 million won	173.0	460.0	chi2(1) = 88.39***
	Over 3 million won	161.0	105.0	
Average Number of Children		1.4	2.3	-
Residence Period		26.7	49.3	-

Note: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Source: Hongcheon-Gun (2021) (in Korean)

Table 2. Job and Income Satisfaction

Division		Young Adults	Elder
Job and Income Satisfaction (Point)	Job Satisfaction	2.3	2.5
	Income Satisfaction	3.0	2.9
Demand for Population Inflow Policy (People)	Etc	114.0	230.0
	Attracting Companies	152.0	222.0
	Job Support	68.0	113.0

Source: Hongcheon-Gun (2021) (in Korean)

다. 가구별 소득 수준은 고령층의 경우 300만 원 미만인 대부분이고, 청장년층은 300만 원 미만과 그 이상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강원도 내 총 거주 기간은 고령층이 청장년층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길게 나타났다. 한편 홍천군민들의 일자리 충분에 대한 만족도와 소득 만족도는 평균 3점 미만이다.

한편, Table 2는 홍천군민들의 일자리 충분에 대한 만족도와 소득 만족도이다. 일자리 및 소득 만족도는 평균 3점 미만으로 대부분 불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홍천군민들의 강원도 내 인구유입에 대한 수요는 청장년층, 고령층 모두 기업유치가 41.6%로 가장 많다. 이어서 '기타'를 제외하고는 일자리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인구유입 정책 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홍천군민의 개인적 특징이 강원도내 인구유입 정책 수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의 적합성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청장년층의 $\chi^2 = -320.34$, 고령층의 $\chi^2 = -565.34$ 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설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은 홍천군민의 개인적 특징이 강원도내 인구유입 정책 수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의 적합성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청장년층의 $\chi^2 = -320.34$, 고령층의 $\chi^2 = -565.34$ 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설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청장년층의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 수요로 기타 대비 '기업유치'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소득 3백만 원 이하 농림어업 종사자, 일자리 기회 만족도, 소득만족도, 강원도 거주기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대비 '일자리 지원'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자리 기회 만족도, 소득만족도로 분석되었다.

청장년층의 인구유입 정책수요 분석결과를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기타 대비 '기업유치' 수요를 선호하는 확률에는 가구소득 3백만 원 이하 농림어업 종사자일 경우 약 7.69배(1/0.13) 증가하며, 일자리 기회 만족도가 높을 경우 1.47배(1/0.68), 소득만족도가 높을 경우 1.22배(1/0.8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강원도 거주기간이 긴 청장년층이 인구유입 정책으로 기타 대비 '기업유치'를 선호할 확률은 0.98배(1/1.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장년층의 기타 대비 '일자리 지원' 수요를 선호하는 확률은 일자리 기회 만족도가 높을 경우 2.38배(1/0.42), 소득만족도가 높을 경우 1.47배(1/0.6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고령층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수요로 기타 대비 '기업유치'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소득 3백만 원 이상 농림어업 종사자, 거주 지역(읍), 소득만족도이고, 이들의 기타 대비 '일자리 지원'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 성별(남자), 정규학력 수준, 가구소득 3백만 원 이하 농림어업 종사자, 거주지역(읍), 소득만족도이다.

고령층의 인구유입 정책수요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타 대비 '기업유치' 수요를 선호하는 확률에는 가구소득 3백만 원 이상 농림어업 종사자일 경우 약 2.22배(1/0.45), 거주지역이 읍 지역일 경우 1.59배(1/0.63), 소득만족도가 높을 경우 1.25배(1/0.8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층의 기타 대비 '일자리 지원' 수요를 선호하는 확률은 가구소득 3백만 원 이상 농림어업 종사자일 경우 약 5.88배(1/0.17), 여성보다는 남자일 때 2.04배(1/0.49), 정규학력 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일 때 1.69배(1/0.59), 거주지역이 읍 지역일 경우 1.37배(1/0.7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전형적인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유입에 대한 수요는 세대별 인구학적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직업의 교

Table 3. Analysis Result

Division	Young Adults			Elder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Odds Ratio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Odds Ratio		
	Estimation Coefficient		t-value		Estimation Coefficient	t-value
Gender	-0.46	-1.30	0.63	-0.31	-1.03	0.73
Education	0.58	1.30	1.79	0.20	0.89	1.22
Spouse	-0.08	-0.22	0.92	0.15	0.51	1.16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with a Household Income of 3 Million Won or Less	-2.03**	-3.00	0.13	-0.39	-1.31	0.68
Others with a Household Income of 3 Million Won or Less Job	0.06	0.14	1.06	-0.30	-1.22	0.74
Unemployed with a Household Income of 3 Million Won or Less	-0.56	-0.74	0.57	-0.34	-1.37	0.71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orth more than 3 Million Won	-0.90	-1.34	0.41	-0.79*	-1.68	0.45
Other Jobs Worth 3 Million Won or more	0.04	0.10	1.04	-0.19	-0.50	0.83
Number of Children	-0.12	-0.84	0.89	0.05	0.40	1.05
Region	-0.11	-0.40	0.90	-0.47**	-2.23	0.63
Job Opportunity Satisfaction	-0.39**	-2.18	0.68	-0.09	-0.85	0.91
Income Satisfaction	-0.20*	-1.80	0.82	-0.22**	-2.57	0.80
Residence Period	0.02***	3.47	1.02	0.00	1.29	1.00
Intercept	0.93	0.81	-	0.38	2.23	-
Gender	-0.54	-1.28	0.58	-0.71*	-1.92	0.49
Education	0.56	0.98	1.75	-0.53*	-1.69	0.59
Spouse	-0.68	-1.54	0.51	-0.00	0.01	1.00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with a Household Income of 3 Million Won or Less	-1.04	-1.39	0.35	-0.49	-1.31	0.61
Others with a Household Income of 3 million Won or Less Job	-0.03	-0.06	0.97	-0.07	-0.27	0.93
Unemployed with a Household Income of 3 Million Won or Less	0.38	0.43	1.46	0.23	0.42	1.26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orth more than 3 Million Won	-1.56	-1.32	0.21	-1.80*	-1.68	0.17
Other Jobs Worth 3 Million Won or more	0.32	0.61	1.38	-0.48	-0.84	0.62
Number of Children	-0.06	-0.33	0.94	-0.05	-0.37	0.95
Region	-0.25	-0.71	0.78	-0.49*	-1.92	0.61
Job Opportunity Satisfaction	-0.86***	-3.63	0.42	0.03	0.21	1.03
Income Satisfaction	-0.39***	-2.78	0.68	-0.32***	-3.05	0.73
Residence Period	0.01	1.38	1.01	0.00	1.13	1.00
Intercept	2.34	1.64	-	401.50	0.05	-
Log Likelihood	-320.34***			-565.34***		

Note: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차항 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농림어업 종사자인 고령층의 경우 기업유치나 일자리 지원 수요보다는 다른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장년층의 경우 현재 일자리 기회 만족도와 소득만족도가 낮을수록 타 인구유입 정책에 비해 기업유치 수요와 일자리 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22년에는 0.78명으로 급감했고, 이러한 합계출산율 감소는 최근들어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있어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지역보다는 전국을 분석단위로 실시해 특정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 내 군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지만, 인구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는 홍천군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인구유입 정책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분석결과, 일자리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는 청장년층의 경우 배우자가 없을 경우 9.6% 증가하고, 일자리 기회 만족도가 낮을수록, 소득만족도가 낮을수록 일자리 기회 지원에 대한 수요는 각각 9%,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의 경우 정규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남자인 경우 일자리 지원 수요는 각각 9%,

8% 증가하고, 소득만족도가 낮을수록 일자리 기회 지원에 대한 수요는 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 홍천군내 일자리 기회 부족 등으로 일자리 기회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소득만족도가 낮을 경우 홍천군의 일자리 기회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홍천군 사업체 수는 2015년 6,049개에서 2020년에는 9,097개로 1.5배 증가했지만, 대부분 건설업 등 일용직 위주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따라서 홍천군 주민들의 경우 일자리 기회 만족도가 낮고, 이러한 일자리 기회의 낮은 만족도는 인구유입 증가를 위한 일자리 기회 지원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2021년 홍천군 사회조사 원시 자료 분석결과, 홍천군민의 2021년 가구 월 평균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 46.2%로 약 50% 가까이가 월 2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반면 500백만 원 이상은 10.8%에 불과하다. 2021년 우리나라 월 가구 평균 소득이 464만 원인 것을 고려할 경우 홍천군민들의 소득수준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홍천군민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한 소득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을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해 일자리 기회 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 정책을 통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청장년층의 경우 기혼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기회가 적고, 소득만족도가 낮은 신규 인구를 대상으로, 고령층의 경우 여자와 정규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만족도가 낮은 신규 인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일자리 지원 정책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전략과 연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K-ESG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적 측면 중에서 '전략적 사회공헌'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조직이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권리(License to Operate)를 획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의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전략적 사회공헌

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직이 사업적 필요와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고려한 사회공헌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방향에 따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전략과 연계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은 청장년층은 거주기간이,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은 거주기간을,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장년층의 경우 지역 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인력 채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청장년층이 지역 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거 여건이 정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거주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령층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고령층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전형적인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세대를 구분한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고령층의 경우 정규학력 수준이 기업유치 및 일자리지원 정책 수요에 긍정적인 수요를 미치고 있다. 하지만 청장년층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징보다는 일자리 기회 및 소득수준 만족도가 일자리지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세대를 구분한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홍천군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수요 여부를 살펴보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요는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홍천군 사회조사의 원시자료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 기회, 기업유치 수요 등은 조사되었지만, 구체적인 일자리 기회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나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추후 홍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수단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홍천군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의 사회조사 원시자료(raw data)를 비교분석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주민들의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를 연령층으로 구분해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홍천군의 인구유입 정책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구지영·안영진(2014), “농촌의 인구유입과 지역변화: 전라남도 장흥군의 귀촌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8(4): 479~492.
2. 김새힘·조미정(2019), “인구구조 변화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지역의 유행화와 도시축소 실태분석 연구”, 『도시재생』, 5(1): 67~81.
3. 김주영(2020), “강원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지역간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부동산연구』, 30(2): 21~32.
4. 김지영·길상혁·정문기(2022), “소멸위기 지방정부의 핵심생산가능인구 유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지』, 34(2): 211~236.
5. 김현호(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전략”, 『지

- 방자치 이슈와 포럼», 39: 10~21.
6. 마스다 히로야(2015), 「지방소멸」, 서울: 와이즈베리.
 7. 박종훈·김찬성·이성우(2020), “교통접근도가 인구유입 및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구」, 107: 25~40.
 8. 석호원(2012), “고령집단의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 티부의 가설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2): 273~312.
 9. 손승호·이호상(2021), “한국 농촌지역의 인구분포 및 변화의 특징: 1995~2020년의 면을 대상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6(6): 607~622.
 10. 이상호(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2016년 봄호: 4~17.
 11. 이장욱·이서현·감홍렬(2019), “인구유입 변동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동향」, 2019년 6월호: 15~33.
 12. 장인수·정찬우(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특성과 향후 정책방향”, 「GRI 연구논총」, 24(4): 1~28.
 13. 정주원·이아라(2022), “인구감소지역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 「한국행정연구」, 31(3): 61~89.
 14. 최봉문·문채·김근영·한상훈·권일·이삼수·임준홍·마강래(2020),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정책과 생활권계획의 역할 제언”, 「도시정보」, 465: 5~21.
 15. 행정안전부(2021.10.19.), “인구감소 지역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1호).
 16. 홍천군(2021), 「2021년 홍천군 사회조사 보고서」, 홍천.
Hongcheon-Gun (2021), “2021 Hongcheon-Gun Social Survey”, Hongcheon. (in Korean)
 17. 황광훈(2023), “청년층의 주거와 취업특성이 결혼의 향에 미치는 영향”, 「LHI Journal」, 51: 1~16.
 18. 황정임·최윤지·윤순덕·김영·정일영(2010), “인구유입 농촌 지역 특성”,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자료집」, 128.
 19. Hausman, J. and D. McFadden (1984), “Specification Tests for the Multinomial Logit Model”, *Econometrica*, 52(5): 1219~1240.
 20. McFadden, D. (1981), “Econometric Models of Probabilistic Choice”, *Structural Analysis of Discrete Data with Econometric Applications*, Cambridge: The MIT Press.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 내 군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는 홍천군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를 실증분석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인구유입 정책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대상(target)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의 경우 청장년층은 강원도 거주기간이,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은 거주기간을,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홍천군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세대를 구분한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고령층의 경우 정규학력 수준이 기업유치 및 일자리지원 정책 수요에 긍정적인 수요를 미치고 있다. 하지만 청장년층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징보다는 일자리기회 및 소득수준 만족도가 일자리지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세대를 구분한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주제어: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인구유입, 다항로짓모형, 맞춤형 인구유입정책
